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첫결실'

영산대 불교동아리 창립…통도사서 첫 법회

1기 동아리 회원 64명 가입해
지도법사 덕현 스님 직접 안내
불자교수 · 학생들과 적극 소통
매월 정기법회 · 템플스테이 계획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청년 대학생 전법을 위해 출범한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의 첫 결실이 탄생했다. 경남 양산에 위치한 영산대에 불교동아리가 창립법회를 봉행하며 새 출발을 알린 것.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는 10월 7일 문수법당에서 '영산대학교 불교동아리 1기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영산대 불교동아리는 지도법사 덕현 스님의 전법활동과 통도사 전법위원회, 양산불교사암연합회 지원 등 지역적인 관심이 이뤄낸 성과다. 영산대 불교동아리 회원으로는 64명이 등록했으며, 지난 7월 6일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 위촉 3개월 만에 이룬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지도법사 덕현 스님의 꾸준한 전법 원력이 눈길을 끈다. 덕현 스님은 대학생 전법위원 위촉 후 일주일 뒤 웅상출장소를 방문해 영산대 불자 교수 면담을 요청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동성 영산대 교수와의 차담 후 불교동아리 창립안을 마련하고 학생들과의 만남도 추진했다. 9월 개강 후 덕현 스님은 영산대 교내에 불교동아리 모집 현수막과 전단지를 부착하며 홍보를 시작했다. 또 스님의 사찰 '웅장원'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미디어 홍보도 더했다. 이뿐만 아니라 직접 간식을 챙겨 교내에서 학생들에게 불교동아리를 안내하면서 가입 신청도 받았다.

이동성 영산대 불교동아리 지도교수와 권승열 교수 등 불자 교수들의 도움도 한몫했으며, 양산불교사암연합회가 장학금 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관심도 쏟아졌다. 지속적인 전법 결과 총 64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현재도 모집을 이어가고 있다.

창립법회에서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영산대 불교동아리 창립을 격려하며 전법활동을 이어 갈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그동안 통도사는 청년들이 사찰을 찾아오기만을 기다린 것이 아닌가 반성하게 된다"며 "젊은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전법의 큰 원력을 실천한 결과를 오늘 마주했다"고 말했다. 이어 "덕현 스님과 영산대에서 불교동아리 창립을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 불교 가르침을 만나 앞으로 더욱 성장하길 바라며 통도사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격려했다.

이날 통도사는 동아리 발전기금 500만원과 종정 성파 대종사의 선물을 전달하며 힘을 보탰다. 법회 이후 학생들은 통도사 금강계단을 참배하고 경내 곳곳을 돌아보며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의 첫 결실인 영산대 불교동아리. 총 64명의 회원이 가입해 10월 7일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이시명(물리치료학과1) 학생은 "불교에 관심은 있었지만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며 "오늘을 계기로 명상과 불교문화를 체험하며 삶에 적용하고 싶다. 오늘처럼 통도사를 방문하고 도반들과 행복한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산대 불교동아리는 앞으로 매월 1회 정기법회와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법회는 학생들의 정서에 맞춰 차담 및 명상 등 다양한 형태로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부산과 울산, 양산 등 타대학 불교동아리와 교류하고 연합으로 템플스테이, 연등회, 산사방문, 봉사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삶, 붓다의 삶을 모델로"

불교환경연대 22주년 녹색대담

법륜 스님 환경 즉문즉설 나서
개인 실천과 지속적 교육 강조


불교환경연대 창립 22주년을 맞아 마련된 법륜 스님의 녹색대담.

"기후위기를 생각한다면, 지속가능한 삶을 고려한다면 붓다의 삶을 모델로 검소한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10월 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공연장에서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 창립 22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법륜 스님과 대담한 녹색대담'이 열렸다. 대담에는 선착순으로 신청한 300여 명이 참석해 환경보살이 되기 위한 지혜를 나눴다. 법륜 스님의 명쾌한 답변에 객석 곳곳에서는 웃음이 터졌고,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도 많았다.

녹색대담은 사회자 남진숙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불교환경연대 기후행동위원장)의 질문에 법륜 스님이 답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질문으로 "환경운동에 있어 생활실천을 강조한 이유"를 묻자 법륜 스님은 "인간이 소비를 줄이면 행복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고 본다. 부처님이 그랬다. 왕자로 태어나 풍요롭게 생활하다 모든 것을 버렸다. 그래도 깨달음을 얻었고 타인들의 모범이 됐다"며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정말 기후위기를 생각한다면, 지속가능한 삶을 고려한다면 물질적 풍요 없이 행복할 수 있었던 부처님의 삶을 표방해야 한다. 실천 없이는 모든 게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남 교수가 "일부에서는 개인의 실천이 지구 온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고 말하자 법륜 스님은 "탄소제로 등의 정책적 목표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해 인간이 가장 큰 위기에 처할 것이란 사실은 명확하다"며 "안 될 것이라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변화는 없다. 확률은 적지만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묵묵히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담에 이어 진행된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에서는 관객들이 평소 궁금했던 환경 문제들이 쏟아졌다. 법륜 스님은 하나씩 짚어가며 이치가 담긴 해법을 풀어냈다.

'초등학교 5학년 딸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이해시키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법륜 스님은 "엄마가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라도 하면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또한 진실을 보도록 가르쳐야 한다. 양말은 마트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양말이 나에게까지 올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의 노고가 들어가는지 알려줘야 마음에 와 닿는 감사함을 배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육식을 끊기 어렵다. 사회생활을 잘하면서 채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질문도 나왔다. 법륜 스님은 "육식을 안 하는데 사회생활이 왜 어렵냐"고 반문하며 "극단적으로 육식을 안 먹겠다 보다는 가능하면 적게 먹겠다는 관점을 가지는 게 일상적으로 가능한 방편이 아닐까 싶다. 얼마든지 자신의 원칙을 지키면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고 대답했다.

김내영 기자

동국대 WISE캠 총장 선출 '본격화'

10월 12일 총추위원 위촉…위원장 범해 스님

1차 회의서 선거 일정 확정
11월 7일 최종 후보자 선발
동국대 이사회서 최종 선정

동국대 WISE캠퍼스의 차기 총장 선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돈관)는 10월 12일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 선출을 위한 WISE총추위원회를 구성하고 동국대 WISE캠퍼스 백주년기념관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조계종 △사회인사 △동문 △교원 △직원 △학부학생 등 각 단위에서 추천된 대표자들을 WISE캠퍼스 총추위원으로 위촉하고, 조계종 교육원장 범해 스님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WISE총추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계종 대표위원 4인(범해 · 성화 · 우봉 · 설도 스님) △사회인사 대표위원 3인(김영일 · 임명배 · 백승권) △동문 대표위원 1명(조덕형) △교원 대표위원 8명(김영진 · 유주한 · 심재명 · 김성환 · 안영규 · 이미애 · 이승덕 · 문일수) △직원 대표위원 3인(강동식 · 이용수 · 이상목) △학부학생 대표위원 1명(유정호)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WISE캠퍼스 총추위원장 범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종립대학인 동국대 WISE캠퍼스에 대해 종단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좋은 분을 총장으로 추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니 위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위촉식 이후 이어진 1차 회의를 통해 WISE캠퍼스 총추위는 WISE캠퍼스 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10월 13~20일 초빙공고를 시작으로 10월 19~20일 후보자 지원서 접수가 진행된다. 10월 24일 열리는 총추위 2차 회의에서는 지원자 자격심사 및 소견발표 방법에 대한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11월 6일에는 후보자 소견 발표, 11월 7일에는 최종 후보자를 선정해 동국대 이사회에 추천하게 된다.

신중일 기자

"10 · 27법난, 잠재된 트라우마 치유해야"

조계종 · 10 · 27법난 피해 모임

'명예회복 · 치유' 학술세미나
일면스님, 흥국사 '용상방' 공개

"10 · 27법난은 많은 불자의 가슴에 새겨진 주홍글씨와 같이 집단적 트라우마로 잠재해 있다. 내면에 잠재된 고통을 치유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내는 출발점이 된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가 10월 1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조계종과 10 · 27법난 피해자 모임이 주최한 '10 · 27법난 명예회복과 치유 학술세미나' 발제를 맡아 법난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10 · 27법난은 사찰, 종단, 불자들에게 역사적 트라우마를 남겼지만, 법난 발생 40여 년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의 기억 속에서 흐릿해지고 관심도 저하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적절히 치유되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에게 한국불교의 수치스러운 역사로 각인될 수 있고, 유사한 상황이 전개될 시 법난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에서 벌어진 삼무일종의 법난은 사건 발생 1천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회자되며 불교계의 수치스러운 피해로 기억된다"고 언급한 김 교수는 정부는 물론, 불교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법난의 역사를 기억하고 직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 · 27법난을 트라우마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치유 방법의 일환으로 사진, 염불, 법고, 음악, 걷기, 소통과 공감, 음식 등을 활용한 문화치유명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문화치유명상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향기를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감촉을 느낄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명상으로 활용한 것"이라며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우울, 분노,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들을 소멸하고 안정과 행복감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 일면 스님은 1980년 10 · 27법난 당시 신군부가 남양주 흥국사에 개설했던 동안거 정진 대중의 소임을 기록한 '용상방'을 최초 공개했다. 법난 당시 신군부는 무고한 스님 30여 명을 남양주 흥국사로 끌고 가 강제 기도, 참선 등 집체교육을 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용상방에서는 前 총무원장 의현 스님과 월탄 스님, 향봉 스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내영 기자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총장 초빙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를 명문 사학으로 이끌어주실
WISE캠퍼스총장님을 모십니다.



지원자격
-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덕망이 있는 분
-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WISE캠퍼스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 또는 현직 WISE부총장으로서 교·직원(WISE캠퍼스 전임교원 및 WISE캠퍼스 정규직원), 불교계(조계종 재적승려), 동문 중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총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추천을 받은 자
- WISE부총장의 자질을 갖춘 교외 인사로 교·직원(WISE캠퍼스 전임교원 및 WISE캠퍼스 정규직원), 불교계(조계종 재적승려), 동문 중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총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추천을 받은 자

제출서류
- 지원서(지정서식) 1부
  * 지원서 이력내용 공간 부족 시 이력서 추가 제출 가능함.
- 주요업적 및 경력소개서 1부(A4 3매 이내)
-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경영에 대한 소견서 1부(A4 5매 이내)
- 추천서(지정서식) 각 1부
  ※ 서식은 홈페이지(http://wise.dongguk.ac.kr)에서 다운로드

접수기간 및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23.10.19.(목)~10.20.(금), 17시까지
- 제출방법 :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접수처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본관 4층
법인사무처

기타
- 등기우편인 경우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WISE부총장후보자 추천에서 제외되거나 추천을 취소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홈페이지 (http://wise.dongguk.ac.kr) 참고
- 문 의 (TEL) 02-2260-3005, 8826 (FAX) 02-2260-8973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